

신조어 속 숨겨진 인문학 들여다보기



SNS 인문학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조어는 곧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조어에 그 시대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신조어는 말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신조어는 한 시대의 특징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그 표현 밑에 숨겨져 있는 배경과 깊이는

빌런·인싸·흠수저 속 철학적 의미 해석 신동기 작가 “신조어는 그 시대의 거울”

결국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일상 속 인문학’ 혹은 ‘생활 밀착형 인문학’을 주장해 온 신동기 작가(62)가 신서영 작가와 함께 신간 ‘SNS 인문학 - 알고 쓰면 더 재밌는 SNS 신조어’를 발간했다. 작가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했으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성과 소멸,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신조어’에 주목한다. 신조어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처럼 단순히 줄여 쓰는 것부터 ‘국뽕’, ‘K-방역’처럼 한글과 외래어를 포괄적으로,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그 표현 밑에 숨겨져 있는 배경과 깊이는

일상 용어로 자리잡기도 한다. 책에 등장하는 ‘빌런’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빌런은 라틴어 ‘빌라누스(villanus)’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 고대 로마의 ‘빌라(villa)’에서 일하는 농노들을 뜻하는 말이었다. 귀족들과 상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던 이들은 결국 그들의 차별과 끝없는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빌런이 악당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의 대적점인 농노 ‘빌런’들은 부정시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신동기 작가

그러나 최근 빌런은부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 미로 쓰이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한다. 선과 악의 대립에서 악이 더 매력적인 대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악에 대응하기 위해 악을 자처하는 배트맨 같은 ‘다크 히어로’나 베놈, 데드풀과 같이 선과 악 양쪽과 모두 대립하는 ‘안티 히어로’가 인기를 끄는 것도 빌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신 작가는 현대의 빌런은 원래 뜻인 악당을 내포하기도 하고, 평범함과

가 먼 ‘괴짜’나 악당은 악당이되 치명적 매력을 지닌 ‘미워할 수 없는 악당’ 정도의 세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악당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갈등 구조 자체가 존재이유인 픽션의 세계에서 그 갈등 구조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선명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선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지만, 악당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한대라는 것 또한 빌런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들 중 하나다. 사람들은 마땅히 ‘정의’를 추구하는 선의 편을 들지만, 재미있는 볼거리와 인간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빌런 쪽이기 때문이다. 신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모습을 가진 빌런이 긍정시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폭잡은 말도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때로는 긍정과 부정을 넘나들기도 한다. 신조어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을 조금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세책 나왔어요

◇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2020년 SF어워드 장편 부문 대상 받은 이경희 작가의 첫소설집. 긴 호흡 장편과 다른 리듬의 단편·중편 여섯 편을 묶은 책으로,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에 굴복하지 않는다. 다산책방. 376쪽.



◇ 우리의 질량=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어갈 차세대 여성 작가 설계인의 소설. 자살한 사람들이 가는 사후세계라는 설정을 통해 현실의 무게감을 떨고, 녹록지 않은 한국 사회 청춘들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그렸다. 시공사. 3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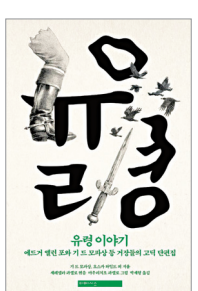
◇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김명기 시인의 사랑의 기록. 사랑의 아픈 여정을 담백하게 고백하는 김 시인은 그 사랑의 아픈 여정을 능동적인 시어로 담백하게 고백하며 묵직한 울림을 던진다. 걷는 사람. 132쪽.



◇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박서련 작가의 데뷔 후 발표작을 엮은 첫 소설집으로, 여성의 자유와 삶이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각각 모성 이데올로기, 여성혐오, 성적 대상화, 돌봄 노동, 가부장제 등 문제들을 통해 다룬다. 민음사. 256쪽.



◇ 유령 이야기=19세기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세계문학 거장들이 쓴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고딕 장르 단편 여덟 편을 각색했다. 전형적인 공포물 사이에 코믹한 유령이 등장하는 독특한 단편도 수록됐다. 미메시스. 136쪽.



조선 후기 ‘불교문화재 정수’ 재조명

국립광주박물관 ‘여수 흥국사’ 보고서 발간 건축·회화·목판 등 150건 812점 심층 조사

국립광주박물관이 광주·전남 불교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여수 흥국사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한 보고서 ‘여수 흥국사’를 발간했다. 여수시 영취산 아래 위치한 흥국사는 고려 후기 승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에 의해 처음 세워진 후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쳐 조선 후기에 흥성한 사찰로,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을 비롯해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많은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 있는 문화재는 지난 1971년 주요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처음 조명됐으며, 국립광주박물관은 첫 조사가 이뤄진

지 50년 만인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흥국사의 주요 건축을 비롯한 불교회화, 불교조각, 공예, 석조미술, 서지와 전적, 목판류를 포함한 총 150건 812점의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관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8명의 조사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총 8개월간 현지 조사 및 분석작업을 담당, 진행했다. ‘여수 흥국사’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조사사업의 개요를 소개한 이후,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흥국사의 연혁과 중건을 다뤘다. 2장에서는 조사 대상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81건 총 568점을 선별해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비문·상량문·발원문의 번역글을 추가해 흥국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도 도출해 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올해 5월 개최될 예정인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남도문화전VII-여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위원들이 여수 흥국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회화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앞으로도 박물관은 지역 소재 불교문화재의 조사 연구 및 보존과 홍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이 흥국사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74책 ‘여수 흥국사’ 보고서는 전국 주요 국공립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박물관 누리집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833만원

무상보조금 303만원

도내생산보조금 48만원

본인부담금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650만원

무상보조금 330만원

도내생산보조금 48만원

본인부담금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462만원

무상보조금 330만원

본인부담금 132만원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WOO

본사:공정 전남 영광군 대미면 전기차로 133 (대미·전기자동차산업단지내)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